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8권 제2호 2001년 12월 pp. 201~208

# 지역사회 친밀도의 최근 연구와 관련변인 고찰

박경철 · 김성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A Review on Current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Kyong Cheol Park · Sung Soo Kim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to suggest directions for community attachment studies in Korea. Specific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search the current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to search for the significant variables related to community attachment,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Current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used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length of residence in the community, age, size of population and density a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2)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used community participation,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s major dependent variables, however,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interchangeably in many cases.
3) Recent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employed community economic and cultural variables, however, studies on community attachment in Korea was relatively limited in terms of quantity as well as quality.
4) Further research on community attachment should be conducted by utilizing variou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n various communities to increase the community attachment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to further strengthen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Key Words** : 지역사회(Community), 지역사회친밀도(Community attachment)

## Ⅰ. 서 론

지역사회 친밀도(community attachment)는 사회가 점점 산업화,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개발을 이해하는 데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서구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출현은 인간생활환경과 자연환경면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급격한 해체와 붕괴를 들 수 있다.

초기 사회학자인 Tönnis(1887)은 사회의 변화를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로 설명하며 사회적 관계도 일차적 관계에서 이차적 관계로 변해간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Wirth(193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는데 그는 그의 저서 "도시성으로서의 생활방식(Urbanism as a Way of Life)"에서 인구의 증가, 정착인의 밀도, 주거민과 집단생활의 이질성 등이 도시화의 본질적 성격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일차적 접촉의 이차적 접촉으로의 대체, 가족과 이웃간의 유대의 약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의미의 감소 등으로 약화되어온 전통적 공동체가 언젠가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인구크기와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친밀도는 감소한다는 선형발전모델(linear-development model)은 이후 연구자들[1]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접근을 역사와 인류학적 관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즉, 체제모델(systemic model)로 설명되는 이 대안모델은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는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참여 등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Kasarda와 Janowitz(1974)가 두 모델을 비교하는 초기 연구 이후 많은 미국내 연구자들은 농촌과 도시간(Beggs, 1996; Stinner et al., 1990), 혹은 농촌지역사회내 친밀도를 비교(Goudy, 1990)했으며 이후 두 모델에서 사용되는 변수 이외에도 소비형태와 경제적 위치(Brown, 1993), 종교참여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Liu et al., 1998) 등 친밀도와 관련한 다양한 독립변수를 통해 비교 · 연구해 왔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구에 비해 산업화, 도시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도시주민의 개별화에 대한 계량적 비교 연구의 부족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포괄하는 지역사회 애착이 지역사회 활동을 향상시킨다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친밀도 결정변수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사회 정체성 회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각기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여러 사회심리적 현상들 중에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지역사회 친밀도의 최근 연구동향과 변인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에 유용하다 할 수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지역사회 친밀도 개념

지역사회 친밀도 개념을 살펴보면 그 명확한 정의는 없고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 개념을 최초로 다차원적으로 규정한 Kasarda와 Janowitz(1974)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 친밀도는 지역적 사회유대망(local social bonds), 공동체 정서(community sentiment)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공식 · 비공식적 조직에의 참여 정도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Liu et al.(1998)는 지역사회 친밀도를 크게 태도적 친밀도(affective attachment)와 행동적 친밀도(behavioral attachment)로 구분했다. 전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도를 포함하는 정서적, 주관적 태도와 정서적 연계감을 의미하며, 후자는 지역사회 연결망과 참여를 의미한다(한내창 · 이성전, 1999)고 했다. 또한 Stinner(1990), Beggs et al.(1996)도 행동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을 모두 지역사회 친밀도의 공동지표로 간주했다. 반면 Kasarda와 Janowitz(1974) 등은 정서적 차원만을 친밀도 지표

1) 서구의 직선적이고 진화론적인 역사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비판을 가한 사람은 로버트 니스벳으로 사회발전을 게마인샤프트에서부터 게젤샤프트로의 직선적 진행을 비판하였다(강대기, 2001).

로 한정했고 행동적 차원을 그 선행변수로 간주했다.

지역사회 친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지역의 크기가 아닌 거주의 기간이 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과 가장 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Goudy, 1990; Kasarda & Janowitz 1974). 그리고 중요하지만 아직도 연구가 미흡한 문제는 지역사회 친밀이 개인의 복리감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지역사회 친밀도는 개인이 그것을 통해 점점 커가는 사회현실과 접촉하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측정 수단과 관련한다(O'Brien, 1994). 무엇보다 인간 삶의 질은 지역성과 지역적 정체성 · 동일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2. 지역사회 친밀도 선행연구

Kasarda와 Janowitz(1974)는 대중(mass)사회에서 지역사회 친밀도 차원을 최초로 두 모델 즉, 선형발전모델과 체제모델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 두 모델 중 첫 번째 모델인 선형발전모델은 Tönnis와 Wirth의 도시화이론에 기초했다. 두 번째 체제모델은 친밀도의 주요 독립변수로 거주기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기초를 두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체제모델은 local community를 복합시스템(complex system)으로 보며, 여기에는 friendship, kinship 그리고 associational network인데 이 모델의 핵심은 새로운 세대와 주거자들은 서로 동화된다는 것이다. Kasarda와 Janowitz(1974)는 주요 종속변수를 크게 ①지역사회 유대망(local social bonds), ②지역사회 정서(community sentiment), ③지역 공동체의 공식 · 비공식적 조직의 참여 정도로 규정하였고, 주요 독립변수로 거주기간, 사회적 지위, 연령, 인구밀도, 지역크기(농촌, 소도시, 대도시)를 설정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그들의 연구가 지역사회친밀도 체제연구모델의 개발자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속변수의 숫자가 너무 많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종속변수가 위에서 열거한 세 영역(지역사회 유대망, 지역사회 정서, 지역사회 참여정도)이 전부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측면만이 친밀도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이후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는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Goudy (1990)이다. 그는 Iowa의 27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친밀도에 관한 두 모델을 측정하였는데 선형발전모델의 핵심변수인 인구크기와 인구밀도는 사회적 유대(친구의 비율, 친척의 비율, 지인수, 참여조직체수)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친밀도는 아주 약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제모델의 변수인 거주기간, 소득, 연령은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Goudy(1990)의 연구는 결국 Kasarda와 Janowitz(1974)의 연구와 내용이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은 없고 다시 한 번 이전 연구의 모델을 재확인하는 정도이다.[2] 그의 연구 결과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비교적 동질적인 농촌지역사회라고 할지라도 친밀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Stinner(1990)의 연구는 Goudy (1990) 등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독립변인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크기, 5개 영역의 사회적 지위변수에 따른 3개 영역의 친밀도(involvement, amity, sentiment)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특히, 사회적 지위 영역을 거주기간, 교육수준, 가족사항, 종교(religious status), 주택소유(home ownership)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사회 크기별(village, town, city)로 나누어서 친밀도를 측정하였다.

2) 예를 들어 개인의 신분이 높을수록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에 친구와 친척의 비율은 적으며 지역사회내에서 공적 조직에 더 참여한다. 이것은 개인적 신분이 높을수록 이동성이 높고 공적 또는 2차적인 사회연결망에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Brown et al.(1990)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들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친밀도는 ①지역사회 결합 및 접촉, ②지역사회 만족도, ③지역사회 관심도 등으로 구분돼서 측정된다. 또한 O'Brien과 Hassinger(1992)는 기존 연구의 요인분석을 통해 크게 ①지역사회에 대한 적합감 수준(level of 'sense of fit'), ②지역사회 평가(community evaluation)로 나누어 친밀도를 측정했으며, 비교적 최근 연구자인 Beggs et al.(1996)은 Goudy(1990)의 지역적 유대를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정서'의 차원을 합하여, ①개인간 그물망 차원, ②지역사회 참여 차원, ③정서적 차원 등 세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친밀도를 측정했다.

그러나 Brown(1993)은 지역사회 친밀도나 만족도에 대한 이전 연구는 독립변인을 개인의 경제적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두 농촌지역에서 고용장소와 고용에 대한 만족을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사용했다. 또 그는 이전의 체제모델 변수이외에도 경제적 변수로 타지역에서의 상품구매(outshopping), 고용의 만족 정도, 임금의 만족 정도, 직장의 위치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해 지역사회 친밀도를 측정했다.

한편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밀도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범위를 정신보건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O'brien et al.(1994)은 지역사회 친밀도와 정신적 침체현상(depression) 사이의 관계를 구명[3]하기 위해 두 농촌지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경제적 활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 지역사회 친밀도가 낮았을 때 더 높은 단계의 정신적 침체 증상이 관찰됐다. 즉, 높은 지역사회 친밀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애정적 태도를 지니면서 공동체의 유지 · 존속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싶어하고 다양한 매개적 기제들을 통하여 개인적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김일철(1990)은 서울과 인천이라는 두 거대도시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부천(富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부천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과 태도(의식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여건과 관련한 통계분석에서 크게 4가지 태도, 즉 1)거주계획("20년 후에도 부천에서 계속 거주계획 여부"), 2)친밀감("부천시에 대해 우리 동네라는 애착과 친밀감"), 3)평가("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 여부"), 그리고 4)전망("20년 후에는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인지 여부") 등 부천시민의 부천시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걸친 정의(情誼)적 태도와 여기에 교육, 연령, 수입, 직장소재지, 거주기간 등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앞의 도시지역사회 연구에 반해 최창욱(1996)은 인구밀도와 지역의 크기가 다른 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Brown(1990)이 개발한 모델을 변형하여 지역사회 친밀도를 측정했으며, 한내창 · 이성전(1999)은 군단위의 농촌지역을 ①사회적 지위, ②그물망 척도, ③지역사회 참여, ④사회구조적 환경, 그리고 기타 통제 변수로는 인생만족도, 자아 존중감, 가족화목도, 내외적 통제감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친밀도를 측정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사회구조적 환경 변수로 지역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배경과 유산들에 대한 자부심을 포함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도현(2000)은 시설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 애향심, 환경보호의식, 책임감으로 나눠서 지역사회 친밀도를 측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지역사회 친밀도 변수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3) 이 연구에서 정신적 침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친밀도 측정 문항은 크게 4개의 질문으로, ①이 지역사회가 살기에 이상적인 곳인가? ②생활공간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만족하는가? ③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돕고 사는지? ④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등이다.

〈표 1〉 선행연구를 통한 변인분석

| 연구자 (연도) | 설정변인 | |
|---|---|---|
| | 독립변수 | 종속변인 |
| Goudy(1990) | 거주기간, 수입, 연령, 인구크기, 인구밀도 | 친구수, 친지수, 지인(知人)수, 가입 조직수, 지역사회 정서, 이주시 슬픔, 지역사회 관심 |
| Stinner(1990) | 거주기간, 교육, 결혼과 자녀수, 종교, 주택소유 | 사회참여, 친구수와 비율, 지역사회 만족도 |
| Brown(1990)<br>최창욱(1996) | 인구밀도, 인구크기, 이질성, 연령, 교육, 수입, 취업상황, 자녀수, 결혼상황, 거주기간, 사회적 활동의 크기 | 기구적 결합, 이웃과의 접촉, 조직참여, 친지의 거주지역, 친구의 거주지역, 지역사회에서의 행복도, 지역사회에의 관심,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
| O'brien과 Hassinger (1992) | 거주기간, 교육, 지역사회의 객관적 특성, 우정의 정도, 사업 또는 직업과 관련한 단체의 회원, 농업 또는 생산품관련 단체의 회원 | 이주시 기쁨/슬픔, 적응 정도, 다른 사람과 동일/차이 정도, 지역주민의 협조, 얼마나 보상(rewarding)적인가, 이상적인 곳에 가까운 정도 |
| Brown(1993) | 자가 여부, 지인 비율, 연령, 참여조직수, 거주기간, 외지구매형태, 직업만족, 소득만족도, 직장위치, 성별, 인종 | 사회적 상호작용, 편안함 정도,이웃간 협조정도 |
| Beggs et al.(1996) | 거주기간, 성별, 인종, 교육, 소득, 연령과 가족수, 가난 정도 | 개인적 유대, 지역사회 참여, 긍정적 정서 |
| Liu et al. (1998) | 나이, 성별, 교육수준, 지역사회 크기, 거주기간, 지역교회 참석, 일반단체 참석, 친구간 연결망 | 편안함 정도, 이주시 아쉬움 정도 |
| 한내창과 이성전 (2000) | 사회적 지위, 그물망척도, 참여, 사회구조적 환경, 통제 변수(인생만족도, 자아존중감, 가족화목도, 내적통제감, 외적통제감) | 지역사회 만족도, 편안함 정도, 이주시 슬픔정도, 자부심 정도 |

### 3. 지역사회 친밀도 선행변수의 영역별 특성

초기 체제모델을 개발한 Kasarda과 Janowitz (1974)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Brown (1993), Beggs et al.(1996), Liu et al.(1998)와 한내창 · 이성전(1999)의 연구변인을 참고로 해서 변인과 그 설정 배경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지역사회 친밀도 : 만족도 영역, 관심도 영역, 이주시 아쉬움 정도 영역

지역사회 친밀도는 크게 개인적 혹은 연결망 차원, 참여 차원, 정서 차원 등 세 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뒤이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 모델을 긍정적으로 지지해 왔다.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친밀도를 정서적 측면에 한정시키고 행동적 측면을 정서적 지역사회 친밀도의 선행(독립)변수로 간주하였다. 행동적 차원은 정서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 나. 인구밀도와 인구크기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인 증가가 사회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사회 친밀도를 약하게 한다는 연구가 Wirth(1938)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Kasarda and Janowitz, 1974). 그러나 최근 최창욱(1996)의 연구에 따르면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 다. 거주기간(length of residence)

Kasarda와 Janowitz(1974)가 최초로 지역사회의 인구밀도나 인구의 크기는 지역사회 친밀도를 약화시키지는 않는 반면 거주기간은 친밀도와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밝힌 이후 지역사회 친밀도 선행연구에서 거주기간은 체제모델에서 지역 유대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일치된 변수로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 라. 사회적 지위(개인특성변수) : 성별, 연령, 결혼, 교육수준, 소득, 직업, 자녀수, 종교, 주택 소유, 주택형태, 직장위치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지역유대를 갖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Goudy, 1990; Kasarda and Janowitz, 1974).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의 사람은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 단체에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며(한내창 · 이성전, 1999; Goudy, 1990), 기혼인 경우와 자녀수가 많은 경우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한내창 · 이성전, 1999; Beggs et al., 1996; Stinner, 1990).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대부분 무시한 변수이기도 하는 이 주택소유는 지역사회 정주(anchor)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 사회적 결합 : 가족수, 친척수, 친구수, 지인수, 이웃과의 접촉, 외지인수

사회적 결합의 첫 번째 단위가 가족이다. 가족은 삶의 중심점이며 가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기능과 인간관계의 형식은 지역공동체의 출발점이 된다. 지역사회 내에 부모 · 형제와 친척 · 친구들이 많을수록 친밀도는 높게 나타났다(한내창 · 이성전, 1999). Riger와 Lavrakas (1981)은 지역사회 친밀도와 이웃간 접촉과의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청년층과 장년층, 두 그룹으로 나누어 증명하였다(최창욱, 1996).

#### 바. 지역사회 참여 : 개인적 모임, 공적 모임

많은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는 지역사회 친밀도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한도현, 1999; 한내창 · 이성전, 1999; Beggs et al., 1996;

Goudy, 1990; Kasarda & Janowitz 197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친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 (1994)은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간의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형성되는 자발적이고 협력적이며 수평적인 연결망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규정했다.

### 사. 사회적 신뢰 : 지역정부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Beggs et al.(1996)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측면은 크게 만족도, 이주의사, 그리고 지역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열(1998)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적으로 제도화된 규칙이나 규범의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 아. 지역경제활동 : 외지구매, 소득만족, 직업만족

Brown(1993)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산다는 것은 첫째가 소비자로, 둘째가 지역주민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것은 지역중심 경제과정에서 이제는 비지역(nonlocal)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자. 사회문화 및 환경 : 문화유산, 교육환경, 교통환경

지역의 역사 · 사회 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은 지역공동체에 애정을 가질 확률이 높다(한내창 · 이성전, 1999). 특히 오랜 역사를 통해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가 발전되어온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이 개인의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과 교통환경도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사회지표(통계청, 2000)를 보면, 1997년 기준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 중 농촌에서는 교통환경과 교육여건이 1, 3위를 차지했고, 도시지역에서는 교통환경이 2위를 차지했다.

## Ⅲ. 요약 및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변수로는 거주기간, 연령, 인구크기, 인구밀도 등 개인의 인구학적인 변수와 지리적인 변수가 들어갔고, 종속변수에는 지역사회 정서, 지역사회 관심도, 이주시 아쉬움 정도, 사회적 접촉과 관계를 주로 설정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모델을 처음 발전시킨 Kasarda과 Janowitz(1974)는 사회적 결합변수(친구수, 친지수, 형식적 조직수, 사회활동 참여수, 교제수)와 지역사회 정서변수(지역사회 정서, 지역사회 관심,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모두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즉, 친구수, 친지수, 참여조직수 등 사회적 결합 자체가 지역사회 친밀도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 친밀도 종속변수를 지역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만 측정한 연구자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뚜렷한 성향을 보이는데 연구자는 O'Brien et al.(1992), Liu et al.(1998), 한내창 · 이성전(1999)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친밀도를 정서적 측면에서 파악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지역사회 평가와 적응도, 편안함 정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 아쉬움 정도 등을 중요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변수로는 지역경제변수와 신뢰, 그리고 정신보건 등이 있다. 지역경제와 신뢰는 친밀도의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정신보건은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데 그 만큼 지역사회 친밀도의 연구가 지역사회내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는 양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수의 폭은 넓지 않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지역주민의 친밀도 향상은 지역활성화에 문제에 있어 시급한 현안이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의 다양화와 더불어 조사대상지역의 다양화가 더욱 요망된다.

## Ⅳ. 참 고 문 헌


1.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 김일철, 1998, 지역사회와 인간생활, 서울대학교출판부.
3. 변시민, 김대환(역), 1993, Tönnis, Ferdinand (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대한교과서(주)
4. 안청시 외(역), 1994, Putnam, Robert D.(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5. 윤준상 · 최창욱, 1998,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와 관련 변인, 한국농촌지도학회 5(1):113-122
6.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여름호):65-93.
7. 최창욱, 1996, 농촌주민의 지역사회친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8. 한내창 · 이성전, 1999, 공동체 친밀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동계대회발표문.
9. 한도현, 1999, 「지역사회와 생활사회학: 김일철 교수의 지역사회론과 한국사회 분석」,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김일철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0. Beggs, et al.(1996), Community Attachment in a Rural Settings: A Refinement and Empirical Test of the Systemic Model, Rural Sociology, 61(5):407-426.
11. Brown, Samual R.,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acially Integrated Neighborhood, Pennsylvania: The Univ. of Pennsylvania Press, Thesis
12. Brown, Ralph B., 1993, Rur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in Mass Consumer Society, Rural Sociology, 58(31):387-403.
13. Brown, Ralph B., Geertesen, H. Reed, Krannich, Richard S. 1989,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 Boomtown: A Longitudinal Analysis, Rural Sociology, 54(4):568-586.
14. Goudy, Willis J., 1990, Community in a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2):178-198.
15. Kasarda, John D. & Mo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y Review 39(june): 328-339.
16. Liu, Qiaoming Amy, Ryan, Vernon, Aurbach, Herbert, Besser, Terry, 1998, The Influence of local Church Participation on Rural Community Attachment, Rural Sociology 63(3):432-450.
17. O'Brien, David J. Edward W. Hassinger, 1992, Community attachment Among Leaders in Five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57(4).
18. O'Brien, David J., Hassinger, Edward W., Dershem, Larry,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Depression Among Residents in Two Rural Midwestern Community, Rural Sociology, 59(2):255-265.
19. Stinner, William F., 1990, Community Size, Individual Social Posi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Rural Sociology 55(4):495-521.


(2001년 10월 7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